病院社會에 있어서의 人間關係

~看護員을 中心으로~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一 序 論

1. 硏究의 意義 및 目的

看護員은 病院社會에 있어서 醫師와 함께 中核的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事實 看護員의 움직임은 病院社會의 분위기 造成에 큰 영향을 주고 醫療活動의 實效도 좌우하는 것이다.

1966年 11月 大韓看護協會에서는 政府에 看護員의 地位 向上을 위하여 請願書를 提出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오늘날 專門看護員은 國民保健과 醫療를 爲한 팀·웍에 있어서 醫師와 더불어 重責을 맡고 있기 때문에 有能한 看護員 없이 醫師의 바른 診斷과 治療方針은 實效를 내지 못함은 물론 看護行爲의 如何에 따라 患者의 生命이 左右되는 例는 許多합니다"

看護員의 行動이 患者의 生命을 左右하는 경우가 많은 實例에 비추어 그들 役割의 重要性은 자주 되풀이 해서 强調되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病院社會의 人口構成에서 차지하는 比率에 있어서도 看護員의 位置를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美國의 綜合病院에 있어서는 醫療活動에 종사하는 人口에서 看護員이 차지하는 比率은 一般的으로 約 60%나 되며 우리나라에서도 國立醫療院이나 聖母病院의 경우 看護員이 各各 55%와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 病院의 醫療活動人口의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看護員의 人間關係는 病院社會 全體의 活動분위기와 士氣를 左右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特히 活動의 對象이 病者이기 때문에 人間關係에서 오는 反應은 예민하다.

그러므로 간호원을 中心으로 한 바람직한 인간 관계는 看護員에게 患者에 對한 좋은 看護와 醫師의 좋은 協助者가 되게 할뿐 아니라 醫療法 第一章 第七條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國民保健의 向上을 도모하고 國民의 健康한 生活確保에 기여하게 하는 根本的인 要因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看護員을 中心으로 한

病院社會에서의 人間關係에 對한 硏究의 意義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硏究의 目的을 要約하면 다음의 둘을 들 수 있다.

① 看護員을 中心으로 한 人間關係를 調査硏究하여 보다 나은 病院社會의 活動 분위기를 造成하는데 必要한 資料를 提供한다.

② 이 調査硏究를 통하여 看護를 中心으로 한 人間關係의 實態를 파악하고 患者 看護 및 敎育의 改善에 硏究結果를 參考한다.

2. 硏 究 方 法

質問紙法을 使用했다. 質問書(Questionnaire)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基礎作業으로서 人間關係에 對한 敎育 및 社會學문헌과 病院에서의 人間關係에 對한 文獻을 參考로 했다.

그리고 醫師 및 看護員과 面接하여 人間關係에 對해서 問議했다. 질문 형식에 있어서는 선택형과 응답자가 自由로이 쓸 수 있는 自由質問型을 擇했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자유 질문에의 응답율은 과히 좋지 않았다. 그 理由로서는 응답자들은 모두 분주한 사람들이므로 쓰는 것을 싫어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서는 醫師用, 看護員用, 患者 및 事務職員用의 세가지로 作成했는데 모두 看護員을 中心으로 한 人間 關係에 對한 질문이다.

標集(sampling)의 對象으로서는 서울 市內의 6個 綜合病院 즉 聖母病院, 서울大學病院, 延世大附屬病院, 國立醫療院, 中部市立病院, 韓一病院을 택했다. 물론 전국적인 조사연구를 하면 이상적이지만 時間과 경비 문제로 이 6개 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표준대상으로 정한 병원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活動하고 있는 人力에 있어서나 韓國의 病院社會를 部分的으로나마 대표할 수 있으리라고 生覺한다.

질문지의 회수율은 일반적으로 양호했다. 이 6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1967年 11月 20日 現在의 전체의 사수는(인턴까지 포함해서) 1,015명, 전체 간호원 수는 1,069명(보조원포함), 전체사무직원수(약사 영양사, 기능인은 제외)는 328명, 전체 入院患者數는 1,788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표집된 것이 醫師 216名, 看護員 283名, 事務職員57名, 入院患者 296名으로서 標集比率(Sampling Ratio)은 다음과 같다.

醫 師	0.21%
看 護 員	0.27%
事務職員	0.17%
入院患者	0.17%

二. 看護員의 自己評價와 人間關係

人間이 스스로를 어떻게 生覺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타인과의 人間關係에 있어서의 行動方向이 決定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만족하는 경우와 불만족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간 행동은 一定한 職場에서의 人間關係에 큰 영향을 준다.

모든 行動은 그 배후에 行動을 일으키게 하는 理由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行政指導者들은 一定한 職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對한 滿足度, 그 직업인으로서의 理想的인 像, 人間關係, 대우 문제 등에 對해서 自己評價를 할 기회를 주고 그 結果를 보고 보다 能率的인 직업활동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硏究하고 對策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서는 一定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看護員이 自己 評價를 통하여 스스로를 알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生覺되는 직업 환경일 경우는 어떻게 하면 원만한 人間關係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요구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看護員이 病院社會의 一員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看護員들이 自己를 評價하므로써 다른 醫療要員과의 關係를 고찰하는데 根本的인 것이 된다. 우선 看護員의 職員에 對한 滿足度를 評價해보았는데 全應答者(283名)의 47%가 「滿足하는 편이다」, 7.77%가 「대단히 만족하다」는 것으로써 이 둘의 項目을 合하면 약 55%가 된다.

結局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간호원이 과반수가 넘고 있어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불만족스럽다」와 「대단히 불만족스럽다」를 合하면 약 13%가 되고 中立的 態度를 取한 「그저 그렇다」는 32.16%이다. 이 中立的 態度를 取한 看護員은 敎育程度에 있어서 三年制 看護學校 出身이 제일 많았고 「대단히 불만족하다」를 生活 程度와 관련시켜 보면 中流層과 下流層이 各各 1.77%와 0.35%의 反應을 보이고 있다.

<표 1> 看護員 職業에 對한 만족도

응 답 문 항	응답%(N=283)
대단히 만족하다	7.77
만족하는 편이다	47.00
그저 그렇다	32.16
불만족스럽다	10.25
대단히 불만족하다	2.47
무응답	0.35
합 계	100.00

그러나 生活程度가 上層이라고 評價한 看護員들 中에는 不滿足하다고 반응한 看護員은 없었다. <표 1 참조>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經濟상태가 좋지 못한 看護員이 보다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보다 좋은 경제적 대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 것은 看護員職을 대단히 불만족 하게 만든 原因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사실 이번 조사에서 의사들이 지적한 것이지만 看護員들의 關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報酬」(37.63%)였다.

이 事實은 看護員에 對한 待遇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證明하는 것이고 看護員의 根本的 責任인 患者의 生命을 保護하고 苦痛을 덜게 하며 健康을 增進시키는 일을 成就하도록 하려면 우선 看護員을 優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勿論 看護員은 높은 敎養을 쌓고 技術을 練磨하는데 全力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들에게 보다 効果的인 醫療活動과 人間關係를 바란다면 行政者는 그들의 待遇改善에 全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

美國에 있어서의 Morin Bressler 과 William Kephart 의 看護職業觀에 對한 調査(A survey of selected aspects of the nursing profession 1956)에 依하면 前에는 看護員이 看護職에 對해서 不滿足하는 傾向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看護員이 滿足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看護員들은 看護職을 擇한 것이 賢明했다고 믿고 있다. 絶對多數의 看護員들은 다른 職業에 옮기려고 願하지 않고 있다. 看護職은 私心이 없을 것, 他人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 가짐, 나를 필요로 한다는 感情이 수반되어야 한다. 大部分의 看護員들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病院에 滿足하고 있다. 그들은 同僚看護員 및 醫師들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 大部分의 看護員들은 報酬를 포함한 勤務條件에 對해서도 滿足하고 있고 活動的인 看護員이거나 非活動的인 看護員이거나 病院에서의 士氣는 대단히 높다. (Simmon and Henderson, Nursing Research,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964 P. 189)

이번 우리의 調査結果에 依하면 우리나라의 看護員들도 一般的으로 滿足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不滿을 表示한 看護員은 約 13%이고 「그저 그렇다」라고 決定的인 意見을 제시하지 않은 看護員이 32.16%나 있었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일이다.

다음에 看護員이 스스로를 어떠한 型의 看護員에 屬하는가를 評價시켜 보았는데 이것은 理想的인 看護員의 像을 硏究하는데 重要한 資料가 된다. 看護員의 像은 現代의 변천과 함께 變化하고 있다. 한때는 Nightingale 과 같은 親切하고 同情的이고 희생적인 看護員이 理想的인 像이었는데 産業이 發達되고 「스피이드」的 生活을 하는 美國과 같은 社會에 있어서는 事務的이고 能率的인 看護員의 型을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實態調査에 依하면 一般人들은 Nightingale型의 看護員을 좋아한다는 것이 判明되고 있다.

그리고 看護員들 자신이 生覺하는 理想的 看護員型은 一般人 또는 患者가 生覺하고 있는 理想과는 좀 다르다. 즉 이 調査에서 看護員들은「事務的이고 能率的인 看護員」이 理想型이라고 말한 사람이 34.62%로서

第一 많고 두번째로 많은 것은 親切하고 同情的인 看護員으로서 33.22%를 차지하고 있다. 反應率의 差는

<표 2> 看護員의 類型

응답문항	응답%(N=283)
친절하고 동정적인 간호원	33.22
사무적이지만 능률적인 간호원	34.62
희생적이고 봉사적인간호원	4.95
자기책임만 겨우이행하는 간호원	18.75
무응답	8.46
합 계	10,000

極少한 것이지만 看護員들의 生覺이 一般人과 다르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으로써 充分한 資料가 된다. 이에 對해서 患者들은 「親切하고 同情的인 看護員」을 理想型으로써 지지하고 있고 看護員은 理想型으로서 事務的이고 能率的인 看護員을 지적하고 있다. 즉 그들은 看護職은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발전해야 하겠다는 意慾이 强하기 때문이다.

前에도 言及했지만 産業이 發達하고 모든 것이 多量으로 또 「스피이드」的으로 되어가는 現實에 있어서 看護員들에게 要求되는 것은 자연히 事務的이지만 能率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므로서 多量의 「스피이드」的 看護를 할 수 있고 專門職으로서의 看護職도 確立할 수 있고 同時에 親切하고 同情的인 看護員으로서도 滿足할 수 있을 것이다. 看護員의 年令에 따른 看護員의 理想型에 對한 反應은 대단히 興味가 있다.

즉 19~24歲 層은 「親切하고 同情

<표 3> 간호원의 연령과 간호원의 유형

응답 / 문항 / 연령별	응답 % (N=283)				
	친절하고 동정적인 간호원	사무적이지만 능률적인간호원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간호원	자기책임만 이행하는 간호원	무응답
18세이하	0.35	0.00	0.00	0.00	0.00
19 ~ 24세	14.14	11.66	1.77	8.83	3.18
25 ~ 30세	10.25	22.98	1.41	8.83	2.83
31 ~ 35세	4.95	1.77	0.71	0.35	1.41
36 ~ 40세	0.00	0.71	0.00	0.00	0.00
41 ~ 45세	0.35	0.00	0.00	0.35	0.00
46 ~ 50세	0.35	0.00	0.00	0.00	0.00
50세이상	0.00	0.00	0.35	0.00	0.00
무 응 답	14.71	0.71	14.35	0.35	0.35

的인 看護員」에 보다 많은 反應率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25~30歲 層은 「사무적이지만 능률적인 간호원」에 훨씬 더 많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1歲 以上의 層에 있어서는 거의 다 「親切하고 同情的인 看護員」에 약간 많은 反應率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9~24歲 層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人間性을 많이 찾는 反面 看護經驗이 많은 25~30歲 層은 看護員社會의 中核的 存在이고 看護員에 對한 價値判斷을 合理的으로 하는 傾向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1歲가 넘으면 看護員으로서 은퇴하려는 生覺을 많이 갖고 職業的으로 思考하려는 傾向이 적어진다. 사실 이번 조사에 있어서 25~30歲 層이 제일 많고(47.35%), 19~24歲 層은 두번째로 많았으나(38.52%), 31歲 以上은 모두 合해서 약 12% 밖에 안된다.

지금까지 看護員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評價하고 있나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스스로의 評價는 病院에서의 看護員들의 人間關係에 있어서의 행동 경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三. 看護員과 醫師와의 인간관계

1. 의사의 간호원에 대한 평가

醫師가 看護員에 對해서 어떻게 生覺하고 있는가는 看護員의 醫師에 對한 人間關係가 어떻게 進行되고 있는가를 暗示해 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것을 알기 爲해서 醫師들에게 「함께 일하고 있는 看護員을 어떻다고 生覺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표 4> 의사가 본 간호원에 대한 평가

응답문항	응답%(N=216)
대단히 바람직하다	12.50
바람직한 편이다	37.96
그저 그렇다	38.89
바람직하지 못한 편이다	4.63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5.09
무응답	0.93
합 계	100.00

이에 對해서 全應答者 216名中 38.89%가 「그저 그렇다」라고 지적하므로써 최고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고 두번째로 많은 반응률은 「바람직한 편이다」가 37.96%, 세번째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가 12.50%이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편이다」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合해서 9.7% 程度였다.

結果的으로 응답자의 약 반수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약 39%쯤 되어 醫師들의 看護員에 對한 一般的 評價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醫師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看護員은 어떠한 型에 屬한다고 生覺 하느냐는 물음에는 17.59%

가 「게으르고 非能率的 看護員」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그저 그렇다」고 答한 醫師들 중의 약 1/3은 看護員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中立的인 應答을 했다고 볼 수 있다.

勿論 같이 일하고 있는 看護員에는 事務的이고 능률적인 型이 第一 많았고((48.16%), 「친절하고 동정적인 형」은 다음으로 많았다 (24.07%)

그러나 問題되는 것은 어떠한 型

<표 5> 동료 간호원의 형

응답문항	응답%(N=216)
게으르고 비능률적	17.59
친절하고 동정적	24.07
사무적이고 능률적	48.16
친절하고 비능률적	5.09
무 응 답	5.09
합 계	100.00

의 看護員을 理想的으로 生覺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調査結果에 依하면 「患者에게 친절하고 同情的인 看護員」을 (47.22%) 「事務的이지만 能率的인 看護員」(43.52%)보다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醫師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면 함께 일하고 있는 看護員이 「事務的이고 能率的」이라고 응답한 의사(48.16%)중 약 44%는 그러한 형(事務的이지만 능률적 간호원)을 만족한 것으로써 생각하고 있지만 약 4%는 滿足하고 있지 않다는 結論이 된다.

두번째로 의사들의 간호원에 對한 人間關係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간호원에 대한 견해이다. 이것은 看護員의 年齡層, 敎育程度, 결혼여부, 질문에 관련시켜 說明해 보려고 한다.

연령층에 대해서 말하자면 압도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젊은 간호원」(20代)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반응률은 80.56%에 달한다. 이에 對해서 老年看護員(50代)과 일하고 싶다고 答한 醫師는 다만 1.38%이고 연령은 상관 없다고 답한 의사는 10.65%였다.

旣婚者와 未婚者中 어느 편하고 일하고 싶은가에 對해서는 未婚者하고 일하고 싶다는 應答者가 56.02%나 되었고 旣婚者를 擇한 사람은 불과 0.46%이다. 그러나 結婚과는 상관없다고 답한 사람이 42.13%나 되어 年齡보다는 훨씬 더 問題가 되지 않는 것 같다.

醫師가 원하는 看護員의 敎育程度로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大學四年制의 "看護學科出身" (48.61%)이고 다음이 "三年制 看護學校"(41.20%)이다. 그러나 "技術高等學校"는 6.48%이고 "大學院" 程度를 願하는 사람은 1.39% 밖에 안된다. 看護員이 지니고 있는 知識, 敎養의 程度가 醫師와의 人間關係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對해서는 많은 說明이 必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看護員들의 資質은 間接的

<표 6> 바람직한 간호원의 교육정도

응답문항	응답 % (N=216)
대학원	1.39
간호학과 〔대학4년〕	48.61
간호학과 〔고졸후 3년〕	41.20
기술고등학교〔중졸후3년〕	6.48
무 응 답	2.32
합 계	100.00

으로 醫師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第一 要求되는 看護員의 資質에 對한 물음에는 「協助와 親切」에 反應한 醫師가 26.85%와 25.00%로서 가장 要求되는 資質이었다.

「協助와 親切」은 어느 社會에서도 절실히 要求되는 것이지만 患者를 다루는 病院社會에 있어서는 더욱 더 要求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協助精神이 不足하고 親切하지 못한 傾向이 많다는 評을 듣고 있다. 따라서 醫師 自身들의 人間關係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은 點이 看護員에게 큰 影響을 준다.

協助와 親切은 좋은 人間關係를 成立시키는 第一의 要素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세번째로 醫師들이 看護職을 어떻게 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人間關係에 어느 程度 影響을 준다. 看護職을 낮게 評價하므로서 對人關係에 있어서 極히 형식적이고 不親切한 傾向이 많다. 相對方의 活動을 높이 評價하면 자연히 존

<표7> 제일 먼저 요구되는 간호원의 자질

응답문항	응답% (N=216)
깨끗하고 단정	8.80
기술적 우수성	4.17
일의 능률	21.30
침 착	7.86
친 절	25.00
사무적 기술	0.00
협 조	26.85
결 손	4.17
기 타	0.46
무 응 답	1.39
합 계	100.00

경심과 眞情한 態度로서 接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女性이 흔히 가질 수 있는 職業中에서 醫師가 가장 높이 評價하는 職을 물었다. (표 8 참조)

〔표 8〕 의사가 본 여성직업에 대한 견해

응답사항	응답% (N=216)
여사무원	3.24
사회사업 종사자	7.86
간호원	20.37
학교교사	13.43
여자 정치인	5.56
여의사	11.11
약 사	7.41
무 응 답	24.06
없 음	2.78
합 계	100.00

이에 많은 反應率을 보인 것은 看護員(20.37%)이고 다음이 學校敎師

(13.43%)였다. 興味있는 것은 女醫師가 第四位로 11.11%의 反應率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看護員職을 높이 評價한 것은 醫師와의 "팀멤버"로서 看護職業의 重要性과 職業女性으로서의 看護員에 對한 認識이 좋아져가고 있다는 證據가 되며 이는 看護敎育 水準의 向上과 看護敎育者의 구준한 敎育活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生覺된다.

그러나 딸에게 (없다면 있다고 가정하고) 看護職을 권하겠느냐의 質問에 "권한다"라고 대답한 것은 6.02%이고 "권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은 32.41%나 된다.

또한 "자기 뜻에 맞기겠다"가 56.48%로서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興味있는 것은 의사 經驗이 적은 層에 있어서 "권하지 않는다"가 "권한다"보다 많고 20年 以上 醫師經驗이 있는 層에 있어서는 前者와 後者에 對한 反應率이 同一하다.

네번째로 醫師가 看護員과의 對人關係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이 結果는 "그저 그렇다"에 對한 反應率이 第一 높고 (46.32%) 다음이 "잘하고 있다" (36.57%) 이었다. "못하고 있다"에 反應한 사람은 겨우 7.78%이다. 綜合的으로 보아 "잘 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 보다 約 29%나 더 많기 때문에 醫師의 看護員에 對한 對人關係는 醫師들의 자기 評價에 의하면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醫師와 看護員과의 보다 많은 人間關係를 위해서 醫師는 看護員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要求하고 있다.

1. 친절히 協調한다. 25.46%
2. 公的인 命令에 服從한다. 13.89%
3. 人格을 존중한다. 12.51%
4. 患者 위주로 生覺한다. 8.33%
5.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5.09%
6. 醫師에 對한 열등의식을 버린다. 1.85%

要求條件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이 31.94%나 됐지만 應答率의 順序는 醫師가 볼 때 看護員들의 人間關係에 있어서 무엇을 改善해야 할 點인가의 順序가 된다. "즉" "親切히 協助한다"가 가장 많이 要求되고 있다. 이것은 前에 醫師가 바라는 看護員의 資質에서 協調와 親切을 가장 많이 强調하고 있다는 事實과 一致된다. 그리고 "公的인 命令에 服從한다"를 두번째로 많이 要求하고 있는데 원만한 人間關係를 조성하기 위해서 重要한 것이라고 醫師들은 生覺하고 있는 것 같다.

2. 看護員의 醫師에 對한 評價

지금까지 醫師가 看護員을 어떻게 評價하고 看護員에게 어떻게 對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人間關係를 위해서 看護員에게 무엇을 要求하고 있

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한 側의 見解만 가지고는 올바른 判斷을 하기 어려우므로 看護員側의 意見을 살펴 볼까 한다. 우선 看護員이 본 醫師와의 人間關係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다"(44.52%)와 "못하고 있다"(2.83%)의 反應率의 偏差는 約 16%나 되기 때문이다. "그저 그렇다가" 49.47%로서 가장 많은 反應率을 보였지만 이 層은 "잘하고 있다"와 "못하고 있다"를 決定하기 어려운 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잘하고 있다"와의 偏差는 約 5%에 지나지 않는다. 看護員들이 醫師와의 對人關係를 잘 못하고 있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표 9> 의사와 간호원과의 대인 관계

응답문항	응답% (N=216)
잘하고 있다	36.57
그저 그렇다	46.30
못하고 있다	6.87
모르겠다	10.26
무응답	0.00
합 계	100.00

1. 人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2. 看護員을 멸시하기 때문에
3. 醫師와의 意見 충돌
4. 非協助的이기 때문에
5. 자기가 해야 할 일에 不充實하기 때문에
6. 바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人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의 意見을 提出한 사람이 가장 많고 다음이 "看護員을 멸시하기 때문에"이다. 무시하는 것도 人格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의 구체적 行動이기 때문에 人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좋은 人間關係를 파괴하는 根本的인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看護員들이 醫師에게 바라는 人間關係의 條件으로 人格존중을 들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음의 表는 看護員이 醫師에게 바라는 人間關係의 條件이다. 두번째로 醫師

간호원이 의사에게 바라는

〔표 10〕 양호한 대인관계의 조건

응답문항	응답 % (N=283)
명령적이 아니고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한다	36.75
평등한 직업인으로 예의를 지켜 주었으면	15.55
좀더 협조적이며 친절한 태도로	13.78
무 응 답	33.92
合 計	100.00

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態度를 取하며 醫師의 지시에 어느 정도 따르며 醫師를 어떻게 批判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醫師와의 人間關係 良好度를 評價하는 것이 된다.

醫師가 病室에 들어올 때 微笑로 대하는 看護員이 압도적으로 第一 많다. (60.67%) 그리고 두번째로 反

應率이 많은 것은"목례를 한다"(31.10%)이었다. 醫師를 微笑로 대하는 것은 퍽 自然스럽고 좋례의 醫師와 看護員과의 階層的 人間關係를 해소하고 近代化하는데 좋은 方法이라고 生覺한다.

그러나 "무관심하다"가 3.89%, "외면한다"는 2.47%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應答을 한 사람들은 醫師 또는 看護員에 不滿이 있거나 性格이 非社交的인 사람이고 醫師와의 人間關係를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醫師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적은 편이다."가 65.72% 로서 第一 많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일이 전혀 없다"는 31.10%로서 두번째로 많이 選擇되고 있다. "대단히 많다"와 "많은 편이다"를 合해서 2.02%에 지나지 않는다. 一般的으로 看護員들이 醫師의 지시에 잘 따르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應答者들은 醫師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괄호안은 應答率)

1. 타당성이 적기 때문이다. (10.25%)
2. 너무 命令的일 때 (5.66%)
3. 지시 事項이 患者에게 不適當할 때 (5.32%)
4. 公的인 일을 私的으로 할 때 (4.24%)
5. 바쁘기 때문에 (3.5%)

醫師들은 이와같은 理由를 잘 理解하고 看護員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먼저 反省해 보고 다음에 行動을 取하는 것이 보다 나은 人間關係에 도움이 될 것이다.

看護員들이 醫師 및 其他 病院職員에 對해서 批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다. 全應答者의

〈표11〉 의사를 좋지않게 이야기하는 경우

응 답 문 항	응답 % (N 283)
진단 및 치료기술이 부족할 때	7.78
근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	30.76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킬 때	1.41
간호원을 멸시할 때	15.90
인격이 도덕적이 못될 때	35.69
기 타	3.51
무 응 답	4.95
합 계	100.00

75.97%라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批評을 한다"고 答하고 있다. 病院社會도 하나의 人間社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豫想할 수 있다. 그러나 批評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18.78%나 되고 있다. 가장 많이 醫師에 對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로서는 「人格이 道德的이 못될때」 (35.69%)이고, 두번째로 많은 應答率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勤務에 充實하지 않을 때 (30.76%)이다. 醫師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看護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그러나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킬 때」는 겨우 1.41%에 지나지 않는다. 醫師를 批評하는 理由가 看護員 스스로의 人格이나 主로 患者에 관련되고 있고 일을 많이 주는 醫師에게는 그다지 관련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看護員들의 眞實한 人間的 思考를 立證해 주는 것이다.

끝으로 看護員의 醫師職에 對한 評價는 前者의 後者에 對한 人間關係行動에 關係가 있다. 相對方의 職業이 높이 評價될수록 尊敬과 겸손한 態度로 行動하기 때문이다. 醫師職은 傳統的으로 高級 專門職으로써 生覺되어 왔다. 大學이 최초로 設立된 中世末期에 있어서 醫學部는 神學部, 法學部와 나란히 大學의 最高學部를 이루고 있었다. 工學部와 商學部에 比하면 學門으로써 歷史도 길다. 그러나 佛蘭西 革命 이후 産業發達에 따르는 商工階級의 社會的 進出은 현저했고 高度로 發達된 産業社會에 있어서 科學機術者와 實業家의 社會的 地位가 대단히 높게 評價되고 있다.

이번 調査에서는 韓國社會에서 가장 높이 評價받은 職業 11個를 제시하고 看護員들에게 좋은 職業이라고 生覺되는 順序로 等位를 定하게 하였다. 調査者는 看護員이 같이 일하고 있는 醫師職을 어느 정도 評價하고 있는가에 關心이 있었고 看護員의 醫師에 對한 內面的인 社會學的 態度를 알아보려 한 것이다.

調査結果는 醫師職을 11個 職業中 第五位로 評價하고 있다. 大學敎授, 엔지니어, 法律家, 會社重役 및 社長 다음에 醫師이다. 高等專門職 中에서는 높이 評價를 받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職業의 評價는 객관적으로 職業이 하는 일의 價値, 社會的 威信, 敎育程度, 收入, 職業人

<표 12> 간 호 원 이 본 직 업 에 대 한 평 가

응답문항 \ 등위	1	2	3	4	5	6	7	8	9	10	11	총등위
대학교수	124	31	26	17	7	5	1	2	1	1	3	1
엔지니어	38	45	36	15	20	23	22	6	12	1	0	2
회사중역및사장	11	25	24	37	23	30	20	14	18	10	6	4
공장관리자	7	7	11	15	22	18	26	48	34	23	7	8
고급공무원	4	7	16	26	33	46	31	29	17	6	5	6
고급장교	1	1	11	8	12	22	34	42	51	30	5	7
의사	6	16	21	31	36	29	27	16	10	16	10	5
배우	0	1	0	0	1	1	0	4	8	32	71	11
법률가	18	55	43	32	26	12	14	9	5	2	1	3
예술가	5	12	9	11	13	15	14	20	34	75	10	10
학교장	4	18	21	26	25	17	29	28	28	22	0	9
무응답	65											

의 人格에 依해서 評價되지만 一般人에 직접 職業評價를 시킬 때는 相對方이 人間關係에 있어서 어떠한 印象을 주었는가는 하나의 重要한 基準이 된다. 따라서 看護員의 醫師에 對한 評價結果는 人間關係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四. 看護員과 患者와의 人間關係

1. 看護員의 患者에 對한 評價

看護員과 患者와의 人間關係는 醫師와 看護員과의 것과 같이 영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病院에 患者를 爲해서 存在한다는 點에 있어서 대단히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看護員의 患者에 對한 態度와 患者의 看護員에 對한 評價 및 態度는 病院社會의 분위기를 決定하는 하나의 重要한 要素가 된다. 看護員이 좋아하는 患者의 型은 "看護員에 協助的인 患者"로서 거의 全部가 (93.64%) 이러한 型을 좋아하고 있다. 看護員에게 "친밀하려고 하는 患者"를 좋아하는 사람은 4.57%이었다. 많은 看護員들이 좋아하는 事務的이고 能率的이며 親切한 看護員이 되려면 患者는 그들에게 效果的인 醫療活動을 하도록 協調的이어야 될 것이다.

看護員이 좋아하는 患者의 性格은 「말이 적은 患者」이다. 이 項目은 압도적으로 많은 應答者가 지지하고 있다. (89.40%) 「말이 많은 患者」를 좋아하는 看護員은 겨우 1.41% 밖에 안되고 「말이 전혀 없는 患者」를 좋다고 한 사람은 2.83%이었다. 비록 患者지만 人間關係에 있어서 말이 많아도 좋지 않고 말이 지나치게 없어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이 많으면 治療活動에 지장이 있어 非能率的이고 말이 전혀 없으면 物質을 다루는것 같아서 看護하는데 興味를 갖지 못할 것이다.

敎育程度가 患者를 效果있게 看護하는데 큰 相關이 있다고 看護員들은 지적하고 있다. 特히 家庭敎育이 좋으면 看護하는데 大端히 편리한 것 같다. 이것은 學校敎育에 있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效果的인 看護를 할 수 있는 患者의 敎養程度에 對한 質問에 「家庭敎育이 어느 程度 좋은 患者」 (62.90%)

效果的인 看護를 할 수 있는 患者의 교양정도

<표 13>

응 답 문 항	응답 % N=283
교양이 많은 환자	33.92
가정교육이 어느 정도 좋은 환자	62.90
가정 교육이 그다지 좋지 않은 환자	1.41
교양이 없는 환자	0.00
무 응 답	1.77
합 계	100.00

의 反應率을 보였고 「家庭敎育이 別로 중지 않는 患者」에 反應한 사람은 1.41% 밖에 안되었다. 그리고 敎養이 전혀 없는 患者를 擇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다음에 醫師들이 評價한 看護員의 患者에 對한 態度를 고찰하는 것인데 이는 大端히 興味 있는 것이다. 그들이 지적한 것으로서 看護員이 患者를 「機械的으로 다룬다」 혹은 「不親切하게 다룬다」는 물론 看護員 個人의 性格的 缺陷도 있으나 病院運營上 또는 其他 與件으로 오는 영향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醫療法令 第六章 32條 四項에 入院患者 5人 對 看護員 2人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調査한 6個病院을 綜合하여 보면 入院患者 약 6人에 看護員 2人이 되며 醫師의 경우 入院患者 20人 對 醫師 1人의 比率로 보아 醫師와 看護員의 法定數의 比는 1對 8이다. 이번 調査에서 6個 病院의 全體 醫師의 數는 1.015名이고 全體 看護員數는 1.069名(補助員 포함)으로서 奇異한 現像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施設 및 物品供給의 不足을 들 수 있다. 應急患者 發生時 신속히 處置할 수 있는 設備 및 物品과 患者中心 看護에 極히 必要한 物品의 不足을 자주 체험하고 있다. 여기서 强調하고 싶은 것은 不足한 人力이나마 能率的으로 일하므로서 좀더 效果를 거둘 수 있는 施設과 充分한 物品供給이 切實히 要求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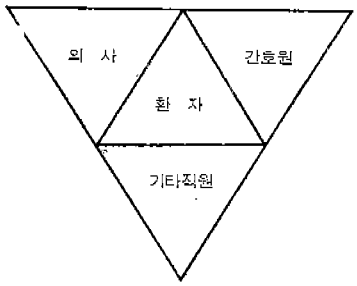
셋째 病院管理上의 缺陷이다. 美國의 오늘의 致富는 科學的 관리에 있다고, 한다. Telly氏는 節約과 能率을 同時에 具備할 수 있는 3 "S" 方法을 指摘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Standardization (標準化)
2. Specialization (專門化)
3. Simplication (單純化)

일의 量, 時間, 文書規定 등을 標準化함으로써 低廉한 經費로서 指導 감독하는 精力을 消耗하지 않고도 目的 達成을 할 수 있고(標準化), 各者가 담당하고 있는 任務를 單純化 또 中央化(機能上, 施設上)하므로서 적은 時間에 能率的으로 일할 수 있고 (單純化), 各分野別 專門化로 高度의 水準維持로서 經濟的이고 能率的인 業務遂行을 할 수 있다. (專門化) 看護員에 있어서 專門化가 必要한 것은 各科別로 分類하여 그 해당 分野에 專念할 수 있어야 繼續的인 發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患者에게 滿足한 看護와 醫師의 order를 嚴守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팀웍"의 결핍을 들 수 있다. 患者 中心으로 醫師, 看護員 및 其他 職員의 "팀웍"은 다음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病院社會에 있어서 무엇보다 重要하다.

患者를 中心으로 醫師와 看護員은 技術 및 情緖的인 面에서 特殊한 問題 解決에 신속하고 其他 職員은 患



者와 間接的인 位置에서 醫師와 看護員이 일을 能率的으로 할 수 있는 與件을 具備해 주어야 한다.

例를 들면 施設에 고장이 있으면 다음 醫療活動에 지장이 없도록 修理해 줌으로써 患者本位의 基本要素가 되는 親切을 베풀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不安定된 現社會的 與件을 들 수 있다. 不平이 많은 患者는 看護員에게도 그 原因이 있으나 患者 自身의 葛藤으로 오는 것이 많다는 것은 看護를 通해서 經驗한 事實이다. 看護員은 이러한 위의 現實에 適應하면서 보다 效果的인 醫療活動을 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看護員이 바라는 患者는 協助的이며 말이 적고 家庭敎育이 어느 程度 좋은 患者라고 한다. 두번째로 많은 反應率을 보인 것이 「患者로서 다룬다」(37.03%)이었다. 친절하고 同情的인 것을 看護員들의 理想型으로 생각하는 醫師들은 患者를 기계적으로 다루는 看護員에 대해서는 不滿일 것이다.

醫師가 본 看護員의 患者에 對한 技術程度에 對해서 말하면 「보통이다」(50.46%)로서의 應答率이 第一 높았다. 「전혀 技術이 없다」도 2.31%가 있다. 「대단히 능숙하다」도 7.42%와 「능숙한 편이다」(33.33%)에 應答한 사람이 적어도 過半數는 차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看護技術에는 患者에 對한 問題해결의 技術 및 人間關係技術도 包含하고 있다고 生覺해야 할 것이다.

환자에 대한 간호원의
<표 14> 간호기술 정도

응답문항	응답 % (N=216)
대단히 능숙하다	7.42
능숙한 편이다	33.33
보통이다	50.46
능숙하지 못한 편이다	6.48
전혀 기술이 없다	2.31
무 응 답	0.00
합 계	100.00

2. 患者의 看護員에 對한 評價

어떠한 職業이던지 그 職業에 따르는 人間像이 있다. 이 人間像에는 세가지 類型이 있다. 즉 職業에 따르는

① 理想的 像

② 現實的인 像

③ 職業人이 스스로 生覺하는 像

이다. 看護員의 理想的인 像은 一般女子보다 더 人間的이고 同情的이어

야 한다는 것이다. 現實的인 像은 人間味나 同情的 面에 있어서 一般 女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職業人이 스스로 生覺하는 像은 推測한 像으로서 一般女子보다 冷靜하고 非同情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點을 머리에 두고 患者가 그리는 看護員의 理想的인 像을 生覺할 必要가 있다.

이번 調査에 依하면 前에도 言及했지만 「親切하고 同情的인 看護員」을 「事務的이고 能率的인 看護員」보다 훨씬 더 患者들이 理想的인 像 또는 型으로 生覺하고 있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前者에 對한 應答率은 77.90%이고 後者에 對한 것은 20,40%이었다. 全應答者中에는 17.0%의 事務職員이 포함되어 있어 完全히 患者의 應答率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約 83%가 患者이기 때문에 患者의 傾向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患者가 接한 看護員에는 「親切하고 同情的인 看護員」이 「事務的이고 能率的인 看護員」보다 약간 더 많았다. 患者가 가장 좋아하는 看護員의 性格은 「명랑한 看護員」(47.88%)이고 두번째로 많이 좋아하는 性格은 「침착한 看護員」(45.89%) 이었다. 그러나 「內省的인 看護員」이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0.85%)

一般 社會人의 人間關係에 있어서도 明朗한 性格의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울한 患者들은 더욱 明朗한 看護員과 接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患者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으로 「말이 적은 看護員」을 지적하고 있다. (48.16%) 「말 잘하는 看護員」은 두번째로 좋아한다. (42.21%) 興味있는 것은 「말이 많은 看護員」 보다는 「말이 없는 看護員」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患者(事務員도 包含)가 바라는 바람직한 人間關係의 條件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 및 사무원이 많이

<표 15> 접한 간호원

응 답 문 항	응답 % (N=353)
게으르고 비능률적 간호원	6.56
친절하고 동정적인 간호원	39.94
사무적이고 능률적인 간호원	37.65
기 타	13.88
무 응 답	1.97
합 계	100.00

환자 및 사무원이

<표 16> 좋아하는 간호원

응답문항	응답% (N=353)
말잘하는 간호원	42.21
말않는 간호원	2.27
말이 적은 간호원	48.16
말이 없는 간호원	5.38
무 응 답	1.98
합 계	100.00

(괄호안은 제시한 사람의 百分率)

1. 明朗하고 親切히 일한다. (40.51%)
2. 患者의 고통을 理解하고 人間性을 重視한다. (8.50%)
3. 정성껏 인정있게 위로해 준다. (6.55%)
4. 희생적으로 充實히 奉仕한다. (5.66%)
5. 민첩하고 세심하게 일한다. (5.10%)
6. 지금 狀態로 滿足한다(1.12%)

(나머지는 無應答)

患者들이 看護職을 어느 정도 評價하고 있나를 알기 爲하여 看護職과 대등하게 보는 다른 職業을 選擇시켰다. 看護職과 비슷한 職業으로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女事務員」(31.73%)이고 두번째로 많이 지적된 것이 「國民學校 敎師」(25.21%)였다. 「大學敎授」와 비슷하다고 評價한 사람도 極少數 있었다(1.70%) 이 職業評價는 患者(事務職員 포함)가 理想的이라고 生覺되는 看護員의 敎育程度와 相關이 있다. 즉 看護學校(高校卒業後三年)出身을 理想으로 生覺하는 사람이 全應答者(353名)의 半數 이상을 차지했다.(50.71%) 이것은 大學四年制의 看護學科出身이 理想的이라고 第一 많이 답한 醫師들의 應答率(48.61%)과는 약간 대조적이다. 大學院程度가 이상적이라고 答한 應答率은 醫師와 비슷하다.(醫師 1.39%).

<표 17>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간호원의 교육 정도<환자 및 사무원의 견해>

응 답 문 항	응 답 % (N=353)
대 학 원	1.98
간호학과(대학 4년)	37.11
간호학교(고등학교졸업후 3년)	50.71
간호고등기술학교(중졸업후 3년	5.95
무 응 답	4.25
합 계	100.00

(患者 및 사무직원 1.98%)

五. 看護員과 事務員과의 人間關係

看護員의 評價에 의하면 事務職員이 看護員에게 대하는 態度는 대체로 겸손한 편이다. 應答率에 있어서 「겸손하게 대하는 편이다」가 全應答者의 52.65%로써 제일 높다. 「무관심하게 대한다」에 反應한 사람도 35.34%나 되어 第 2位를 차지하고 있다. 看護員과는 그다지 접촉할 機會가 적고 보면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注目할만한 것은 「거만하게 대하는 편이다」라고 應答한 사람이 5.65%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看護員에게 거만하게 대하므로서 비능률적이고 兩者間의 人間關係에 있어 벽이 생기게 하고 病院社會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學校에서

도 볼 수 있다. 事務職員이 敎師에게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例가 이따금 있다. 그러나 事務員들에게 看護員과의 對人關係에 對한 質問이 또

<표 18> 병원의 사무직원이 간호원을 대하는 태도<간호원들의 평가>

응 답 문 항	응 답 % (N=283)
대단히 겸손하게 대한다	1.77
겸손하게 대하는 편이다	52.65
무관심하게 대한다	35.34
거만하게 대하는 편이다	5.65
무시하고 대한다	0.71
무 응 답	3.88
합 계	100.00

應答者(57名)중의 49.12%가 「친절한 편이다」라고 답하여 제일의 應答을 보이고 있다. 두번째로 많이 지적된 것은 「대단히 친절하다」로써 26.32%를 차지하고 있어 注目할만하다. 왜냐하면 事務職員이 看護員을 대하는 態度評價에 있어 「대단히 겸손하다」라고 看護員들이 답한 것은 1.77%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看護員이 「대단히 不親切하다」고 답한 事務員은 한名도 없다. 이러한 現象은 人間關係에 있어 兩者間에 어느 誤解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生覺되지만 相對方은 겸손하지 않거나 거만하다고 生覺되는 경우를 對人關係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看護員이 事務職員에게 對하는 態度도 역시 그러하다. 看護員에게 事務職員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 보았는데 약 50%가 「겸손하게 對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겸손하게 對하지 않는다」는 0.71%, 「냉정하게 對한다」는 한명도 없다. 「事務的으로 對한다」는 37.8%로서 두번째로 많은 應答率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事務員이 주로 男子이고 서로 접촉할 機會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年齡的으로 보면 25~30才층에서 「事務的으로 대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겸손하게 대하는 편이다」에 대한 應答率은 20.

<표19> 사무원이 간호원을 대하는 태도

응 답 문 항	응 답 % (N=75)
대단히 친절하다	26.32
친절한 편이다	49.12
그저 그렇다	21.06
불친절하다	1.75
대단히 불친절하다	0.00
무 응 답	1.75
합 계	100.00

<표20> 간호원이 병원 직원에 대한 態度

응 답 문 항	응 답 % (N=283)
대단히 겸손하게 대한다	3.18
겸손하게 대하는 편이다	49.82
무관심으로 대한다	6.71
겸손하게 대하지 않는다	0.71
냉정하게 대한다	0.00
사무적으로 대한다	37.81
무 응 답	1.77
합 계	100.00

20%로서 前者와 同一하다.

六. 看護員동료간의 人間關係

看護員들 끼리의 人間關係도 바람직한 職場의 분위기의 造成을 爲해서 輕視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各 看護員間의 바람직한 對人關係보다는 對人關係를 파괴하는 原因에 대해서 고찰할까 한다. 즉 이러한 고찰을 하기 爲해서 다음과 같은 것은 看護員동료간의 人間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行動이라고 한다. 어느 것이 가장 방해가 된다고 生覺하십니까?와 같은 質問을 던졌다. 방해가 되는 行動은 11項目이 있었는데 이중 가장 많은 應答率을 받은 것은 責任感이 없는 것(31.80%)이다. 責任感이 없다는 것은 規律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이 他人 또는 集團에서 부터 부과된 義務를 다하지 않는 行動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他人에 對한 言行에 對해서 責任을 지지 않는 態度를 가르킨다. 自己言動에 責任을 지지 않는 것이 親友關係를 방해하는 가장 강한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많은 應答率을 받은 것은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21.20%) 세번째는 「명령적으로 하려 드는 것」(11.66%)이다. 그러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가장 바람직한 人間關係의 하나는 親和와 信賴이다.

<표 21> 동료간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유

응 답 분 항	응 답 % (N=283)
지나친 주장	8.13
제멋대로 하는 것	7.42
명령하려 드는 점	11.66
딴사람의 비판을 하는 점	4.59
사람을 공격하는 것	0.00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	21.20
의심이 많은 것	0.35
책임감이 없는 것	31.80
거짓말을 하는 것	3.89
남의 말대로 하는 것	0.35
친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고립되는 것	2.12
무 응 답	8.49
합 계	100.00

他人의 言動을 非難하거나 叱責하고 때로는 腕力을 쓰는 것은 親和와 信賴를 파괴하는 行動이다.

그러나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동료간의 좋은 人間關係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事實이다.

應答者들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오히려 씩씩하고 좋은 것으로 해석했는지도 모른다.

七. 結語 및 提言

한 人間의 自己評價는 그 사람이 行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看護員들은 그들의 職業에 對해서 滿足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看護員들이 生覺하는 看護

員의 理想型은 사무적이지만 能率的인 看護員」이다. 그러나 醫師와 患者에 있어서는 親切하고 同情的인 看護員을 理想型으로 生覺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急速히 發展하고 있는 現社會에 있어서 看護職을 專門職으로 確立하는 것은 時急한 일이며 이렇게 하기 爲하여서는 事務的이지만 능률적인 看護員型이 必然的으로 要求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의 表는 看護員, 醫師, 患者가 보는 看護員의 理想型에 對한 應答率을 比較한 것이다.

理想型	應答率		
	看護員	醫師	患者
事務的이지만 能率的인 看護員	34.62	43.52	20.4
親切하고 同情的인 看護員	33.22	47.22	77.90

醫師가 본 看護員과의 人間關係는 대체로 바람직한 편이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로 生覺하고 있는 醫師가 約 39%나 있고 「게으르고 非能率的」인 看護員이 있다고 指摘한 醫師가 17.59%나 있어 兩者間의 人間關係의 改善이 더욱 要望된다. 醫師가 願하는 看護員의 敎育程度로 가장 많이 指摘된 것은 大學 四年制의 看護學科 敎育이다.

이것은 看護職이 專門職으로 發展하는 過程에 있어서 必須的이며 좋은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醫師가 본 看護員의 資質로써 가장 要求되는 것이 協調와 親切이다.

技術的 優秀性은 그다지 問題되지 않았고 協調와 親切은 醫師와의 좋은 人間關係를 成立시키는데 第一重要한 要素라고 할 수 있다.

醫師의 看護職에 對한 評價는 過去의 印象과는 달리 女性들이 갖는 많은 職業들 가운데서 看護職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딸에게(없다면 있다고 가정해서) 看護職을 勸하겠느냐의 質問에 對해서는 「勸하지 않는다」(32.41%)가 勸한다(6.02%) 보다 더 많았다.

이것은 思考와 實踐이 一致하는 일이 적은 現代 인텔리의 特徵을 단적으로 表示하고 있다.

看護員이 본 醫師와의 對人關係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應答率 : 잘하고 있다 44.52%, 못하고 있다 2.83%).

醫師와의 對人關係를 잘못하고 있는 理由로써 가장 큰 것은 人格을 尊重하지 않거나 看護員을 멸시하는 것이다.

看護員들이 醫師에게 바라는 좋은 人間關係의 條件으로 제일 많이 提示한 것은 命令的이 아니고 人格을 존중하는 것과 責任感이다.

看護員들의 응답에 의하면 대체로 醫師들의 指示는 잘 따르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醫師들의 看護員에 對한 不滿은 一般的으로 協調와 親切이 부족하고 그들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看護員이 醫師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理由로써 看護員들은 지시가 「妥當性이 없고」 「너무 命令的」이라는 것을 第一 많이 들고 있다.

看護員들의 醫師職에 對한 評價는 豫測한 것 보다는 좋은 것이 아니었다. 社會에서 가장 높이 評價받는 11個의 職業 중에서 第5五位로 좋은 직업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大學敎授, 엔지니어, 法律家, 會社重役, 社長 다음에 醫師였다. 이와같은 看護員의 醫師職에 對한 평가 결과는 前者의 後者에 對한 人間關係 良好度 및 人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看護員이 좋아하는 患者의 型은 協調的인 患者이다. 거의 전부가 (93.6%)이런 型을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看護員이 좋아하는 患者의 性格은 「말이 적은 患者」이다. 看護員들은 患者가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또는 말이 너무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調査에서 判明되었다.

그리고 또 그들은 家庭敎育이 좋은 患者들은 看護하기에 편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患者들이 바라는 理想的인 看護員의 像은 「친절하고 동정적인 型」이다. 그리고 실제로 患者가 접한 看護員에는 「친절하고 同情的인 看護員」이 「사무적이지만 能率的인 看護員」보다 약간 더 많았다. 患者가 가장 좋아하는 看護員의 性格은 「明朗하고 親切한 看護員(40.5%)」이다. 明朗과 親切은 看護員 뿐만 아니라 醫師에게도 要求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人間關係의 條件으로 어느 社會에서나 要求되는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말이 없는 看護員 보다 말이 많은 看護員을 덜 좋아하는 傾向이었다.

患者들 중에서 看護員을 女事務員과 대등하다고 보는 사람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國民學校敎師와 같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大學敎授와 비슷하다고 評價한 사람은 극소수(1.70%)이었다. 看護職이 專門職으로 發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形態로 評價될 수 있으나 敎育程度로나 그 重責으로 보아 앞으로는 中高等學校敎師程度로 認定을 받아야 할 것이다.

看護員의 評價에 의하면 事務職員이 看護員에 대하는 態度는 대체로 좋은 편이다. 그러나 「거만하게 대하는 편이다」라고 답한 사람도 5.65%나 있었다. 이에 대하여 事務員들 자신의 評價에 依하면 간호원에게 不親切하게 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全應答者의 약 2/3가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兩者間에 원만한 人間關係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나 그중에는 일종의 오해

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看護員同僚間의 바람직한 人間關係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責任感 없는 것」(應答者 : 31.80%) 이다. 두번째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남을 중상」하는 것이다. (21.20%) 自己의 言動에 對해서 責任을 지지 않고 남을 중상하여 不利하게 만드는 사람을 看護員들은 가장 排斥하는 傾向이 있다.

끝으로 病院社會에 있어서의 看護員을 中心으로 한 보다 나은 人間關係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提言하고 싶다.

① 많은 醫師들이 生覺하는 看護員의 理想的인 敎育程度는 大學 四年制 看護學科 卒業이다. 看護職을 專門職으로 확립시키기 위하여도 장차는 모든 看護員의 敎育은 大學과정의 敎育程度가 되어야 한다.

② 醫師와 看護員과의 보다 나은 人間關係를 위해서 醫師들은 「親切히 協調한다」를 제일 많이 要求하고 있는데 이 點을 看護敎育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③ 看護員이 醫師에게 바라는 좋은 人間關係의 第一 條件은 「命令的이 아닌 人格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醫師敎育에 있어서도 醫術에만 置重하지 말고 人間敎育에도 重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④ 看護員이 醫師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理由는 지시가 妥當性이 없고 지나치게 命令的인 경우가 많으므로 醫師들은 指示의 內容과 指示態度를 신중히 生覺해야 한다.

⑤ 患者들이 가장 좋아하는 看護員의 性格은 「明朗」이고 그들이 바람직한 對人關係의 條件으로 看護員에게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明朗 親切」이므로 看護學科 入學志願者에게는 適性檢査를 하여 明朗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⑥ 看護員과 事務員과의 人間關係에 있어서 誤解가 있기 쉬우므로 서로 理解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⑦ 病院社會에서의 看護員의 醫師, 患者, 事務員과의 바람직한 人間關係는 相互間의 理解와 努力에 依해서 그 良好度를 높일 수 있지만 근본 문제로서 적은 수의 看護員이 많은 患者를 돌보아야 하는 고로 발생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간호원의 수급이 요청된다. 그리고 전문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조직적 교육과정을 거친 간호원으로서의 대우개선을 기대하는 바이다.

김영매 교수 발령

가톨릭의대 간호학과의 김영매 교수가 지난 3월 1일자로 승급 교수발령을 받았다.

한편 방용자, 김설자 양씨도 부교수 발령을 받았으며 작년 9월에 방숙자씨도 부교수 발령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